# 논 품종 개발, 논콩 재배면적 확대

## 농진청, 습에 강하고 기계 재배 쉬운 '선풍'·'대찬' 등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논에서도 잘 자라고 기계 재배가 수월한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을 늘려 논콩 재배면적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쌀 소비량 감소로 쌀은 과잉 공급 상황에 이르렀지만, 콩은 자급률이 계속 감소해 현재 양곡 전체 자급률(4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논에 콩 또는 밀, 콩 이모작을 장려해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자급률 향상 및 쌀 생산 조절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논에서 벼만큼 재배하기 쉽고 기계 재배가 수월한 콩 품종 '선풍', '대찬' 등을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2016년 4,422헥타르였던 논콩 재배면적은 2023년 18,314헥타르로 4.1배 확대됐다.

김제의 어느 논콩 재배지 전경.

기존 콩은 습한 논 토양에서 잘 자라지 않고 밀과 이모작을 할 때 콩 수확과 밀 파종기간이 겹쳐 재배하기가 다소 불안정했다. 특히, 기계수확이 어려워 현장에서는 논에서 콩을 재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 콩 품종들은 기후변화 적응성을 강화했고, 병 저항성이 높으며 습해에도 강해 논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이 있다. 맨 아래 꼬투리 달리는 위치도 높아 기계수확에도 유리하다.

2024년에는 키가 크고 잘 쓰러지지 않아 기계수확에 적합한 '장풍'과 생육기간이 짧아 사료작물·밀 등과의 이모작에 적합한 '선유2호'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논콩 주요 품종인 '선풍'보다 수량성이 더 향상된 우량계통을 선발하고, 지역 적응 시험과 주요 논콩 재배단지에서 안정성 평가를 거쳐 품종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콩 전체 생산량이 10% 증가하면, 콩 자급률이 2.6% 포인트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환경공단과 양재동 aT센터서 협약 체결

## 저탄소 식생활 · 농수산식품 자원순환 활성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과 농수산식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후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의 확산과 탄소중립 실천 협력 △농수산식품 유통 분야 자원순환 활성화 △환경·사회공헌·윤리경영 등 ESG경영 실천 문화 확산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을 이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촉진에 앞장서는 한국환경공단의 전문성을 활용해,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실천뿐만 아니라 농수산식품 유통 분야 자원순환 체계 마련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하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한국환경공단의 미션이 '지속 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인 만큼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해 미래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함께 선물하자"라고 당부했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도입해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5개국 62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김재훈 기자

# 전북중기청, 중기 장기근속 무주택자 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근속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제외되는 업종은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이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전주 '서신 더샵 비발디 1·2·3단지'는 포스코이앤씨(주)에서 시행하는 아파트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40-4번지 일대에 건설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228세대(확정추천 38세대 +예비추천 190세대)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농협은 28일 본점 청사앞에서 2024년부터 실시하는 '무병장수기원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임인규 조합장을 비롯해 전주농협 임원 및 직원이 참여했다.

# '무병장수 기원 사업' 발대식

## 전주농협, 농민 · 조합원 건강 기원… 내년 추진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28일 본점 청사앞에서 2024년부터 실시하는 '무병장수 기원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임인규 조합장을 비롯해 전주농협 임원 및 직원이 참여했다.

2024년부터 실시하는 '무병장수 기원사업'은 농민 조합원의 건강을 기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생신을 맞이한 59세 이상의 조합원 약 5,500명에게 미역국 꾸러미(건미역, 소고기, 식혜)를 제공하는 '조합원 건강지킴이 담당제'를 도입하여 조합원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물론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사업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인규 조합장은 "우리농협의 근간이며 애국자이신 농민 조합원님들의 생일날에 조합원 댁을 직접 찾아뵙고 따뜻한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미역국 꾸러미를 전달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이를 사업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사업 활성화와 사업 방향 설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농협 사업 성장이 함께 활성화 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 표준산업분류 개정 고시

## 통계청, 내년 1월 7년 만에 개편… 이차전지 · 전기차 등 추가

조세 부과, 사회보험 적용, 공장 등록 등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7년 만에 개편된다. 수소, 이차전지, 전기차, 풍력발전 등 미래·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이 이뤄졌다.

통계청은 내년 1월1일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고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10차 개정 이후 7년 만이다. 통계청은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 분류심의회,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개정 최종안을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내 산업구조와 환경 변화, 국제분류 기준 등을 반영해 미래·성장 산업 분류항목을 신설하거나 세분화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든 산업은 분류 항목을 통합하고, 국제 기준 등을 반영했다.

우선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수소 △체외진단시약 △이차전지 △전기차△풍력발전 △영상물·오디오물 제공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서비스 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을 중심으로 분류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감소한 △콩나물재배 △타이어재생 △동(銅)주물 △사진 및 영사기 △일반저울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전자악기 제조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 △복사업 등은 분류를 통합했다.

사업체 수와 매출액, 종사자 수 등을 세세하게 구분하거나 분리해야 파악이 가능한 산업도 분류했다. △생물의약품 △인조대리석 △치과기공물 △임플란트 △부동산 분양 대행 △카지노 등을 신설·세분화했다.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기준에 따라 사회보장보험업과 연금업을 대분류 'K'에서 'O'로 이동했다. /뉴시스